

### 39. 성소정결이 무슨 뜻인가?

2012. 9. 23.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명호 목사입니다. 김영진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왜 2300주야까지 라고 예언했는지 그 이유를 설명하는 중에 시간이 다 되어서 오늘 시간으로 미루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연대를 주신 이유의 결론과 또 성소정결이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귀 기울여 잘 들으시고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CD를 원하시면 나성중앙교회 박진용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보내 드립니다. 626-374-9480번으로 전화하시거나 김영진 목사님께 연락하시면 됩니다. 김목사님 전화는 626-497-8199입니다.

[압3:7,8]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8 사자가 부르짖은즉 누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느냐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즉 누가 예언하지 아니하겠느냐.

1.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택하신 본문을 그대로 택하셨네요.

답: 예, 지난 시간에 2300주야라는 예언을 하신 이유를 설명하는 중에 끝을 못 맺었거든요. 아모스 선지자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보여주시고 행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성소정결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이루는데 일대전기가 될 사건을 선지자를 통하여 가르쳐주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 선지자는 예언할 수밖에 없지요. 2300주야도 바로 그렇게 예언한 것이며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비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2. 지난 시간에 3R 운동에 대하여 말씀하셨지요?(예) 일반 민중들도 읽고 쓰고 셈하기 공부를 해서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는데, 책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특히 성경을 구하여 읽기가 어려웠고 구하려고 해도 비쌌던 모양이지요.

답: 그랬지요. 서민들은 이제 책을 읽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지만 책을 사서 읽을 경제적 수준이 되지 못했지요.

3. 그런데 읽고 쓰고 셈하게 된 것과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여진다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답: 저는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제 말을 수긍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인들이 성경을 읽을 수 없으니까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것이 곧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교회 지도자들이 강론하고 주장하는 것이 성경의 계시와 온전히 일치하는지 성경 자체로 검토해서 확인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런 사실에 대하여 성경이 직접 가르치고 있지요. 딤후2:15을 한 번 읽어보시지요.

[딤후2:15]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말씀은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지요. 행17:11을 읽어주시겠습니까?

[행17:11] 베뢰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12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감사합니다. 옛날 베뢰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지만 무조건 수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들은 말씀이 성경과 일치하는지 일일이 살폈습니다. 그래서 확인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의 교인들이 설교를 듣고 그것을 끝입니다. 설교자가 영터리로 말해도 그렇거니 한다는 말이지요. 이렇게 되면 성경이 가르치는 올바른 진리를 따라 신앙생활 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교인은 되었겠지만 진리의 사람은 안 됩니다. 진리를 옳게 분변하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려면 반드시 성경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너무 비싸서 서민들은 성경을 구입할 수 없었습니다. 옛날에는 성경책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를 뽐내는 일이 되기도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읽고 쓰고 셈하는 것을 잘 해도 성경 연구는 여전히 지도자들만의 몫이었지요. 성경을 쉽게 구입할 수 있는 길이 열려야 합니다.(정말 그렇겠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값싸게 누구든지 구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십니다. (어떻게요?)

영국 웨일즈 지방 서해안 지방 빈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성경 이야기를 들은 메리 존스라는 소녀는 10살 때 글을 읽을 수 있게 되자 성경을 직접 읽어보기를 원하는 중에 책값을 마련하기 위하여 6년을 일해서 돈을 모았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빨라 지방에 있는 찰스 목사님이 웨일즈 성경을 판다는 것을 알고 30Km를 걸어서 목사님에게 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성경은 다 없어졌습니다. 낙심한 메리가 우는 것을 보고 찰스 목사님은 자기 성경을 메리에게 주고, 그는 1802년에 런던에서 열린 기독교 책자 협회에서 메리 존스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모든 회원들이 감동을 받아 성경을 쉽게 보급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의논이 되어서 1804년 3월 7일에 대영성서공회가 설립되었고, 성경을 대량으로 출판하게 되었지요. 그 후로 화란 성서공회 러시아 성서공회 미국 성서공회 등이 잇따라 설립되면서 성경이 대량 출판되고 값도 싸져서 누구든지 쉽게 싸게 성경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읽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은 원하기만 하면 성경을 구입하여 스스로 연구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것입니다.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여지는 일이 있을 것인데 그때 땅에 떨어져 밝힌 진리가 회복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다니엘 8:13,14에 기록되었지요. 한 번 확인하지요.

[단8:12~14]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13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14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여지는 일이 어떤 일인지 잘 말씀해주지 않습니다. 10절부터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이것은 8장을 공부할 때 아마도 설명했을 것입니다. 작은 뿔이 성소를 헐고, 타미드를 자기가 차지하고 진리를 땅에 던졌는데 그것이 정결해지는 때가 언제인가 하나까 2300주야까진데 그때 성소가 정결하여진다고 대답한 것이거든요. 성소가 정결해지는 데에는 진리가 회복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회복되려면 진리를 연구하는 일이 필수적이지요. 그렇게 하려면 성경을 마음 놓고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지요. 1804년에서 그 여건이 조성되는 첫걸음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로부터 40년이 되는 해가 2300주야의 끝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40년이 성경에 기록된 연수로는 한 세대입니다. 성경을 쉽게 싸게 구하여 연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지 한 세대가 되었을 때 성소정결 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라고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은 이런 역사적 진행을 이미 다 보신 것입니다. 그래서 2300주야 끝에 성소정결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비밀을 보이지 않고는 행하심이 없으시다는 말씀 얼마나 감사한지요.

4. 정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소정결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엇을 뜻하는 말인지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답: 먼저 다니엘 8:9~14을 읽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번 언젠가 8장을 공부할 때 읽었던 말씀이지만 상기하는 뜻에서 다시 읽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마 지난 번 8장을 공부할 때 성소정결에 대하여 한 측면을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김목사: 예, 그랬습니다. 34회와 35회 말씀에서 그 이야기를 상당히 자세히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8월 19일과 25일에 말씀하셨지요.

감사합니다. 잘 기억하고 말씀하셔서 좋습니다. 그때 성소정결의 중심은 루시퍼의 죄를 온 우주에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먼저 성경을 읽지요.

[단8:9~14] 그 중 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영화로운 땅을 향하여 심히 커지더니 10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11 또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재를 대적하며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렸고 그의 성소를 헐었으며 12 범죄함을 인하여 백성과 매일 드리는 제사가 그것에게 붙인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13 내가 들은즉 거룩한 자가 말하더니 다른 거룩한 자가 그 말하는 자에게 묻되 이상에 나타난 바 매일 드리는 제사와 망하게 하는 죄악에 대한 일과 성소와 백성이 내어준 바 되며 짓밟힐 일이 어느 때까지 이를꼬 하매 14 그가 내게 이르되 이천삼백 주야까지니 그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작은 뿔이 성소를 헐었고, 타미드를 자신이 차지하였고 진리를 땅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성소를 헐 것과 타미드를 차지한 사실은 이미 몇 회 전 강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소정결의 중심 사건이 루시퍼를 처리하는 것임을 이야기 했지요. 그러나 성소가 정결하게 된 것이 무엇인지는 말하지 않은 것 같네요. 죄의 세력을 주장하는 장본인을 멸하는 것으로 이제는 성소가 더럽혀지는 일이 없게 되는데, 지상성소는 속죄일 하루가 그랬습니다. 다음날부터 여전히 성소봉사를 계속했지요. 사실은 성경을 자세히 살피면 대속죄일 당일에도 성소봉사를 계속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민29:7~11을 아주 주의해서 자세히 읽으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성소 정결은 그 성질이 좀 달라집니다.

5. 하늘성소 정결이 지상성소 정결과 어떻게 성질이 달라집니까?

답: 성소봉사는 제사장이 합니다. 물론 대제사장도 합니다. 예수께서 제사장이신데, 세상에 계시면 제사장이 되실 수 없다고 했습니다. 히8:4을 읽어보실까요.

[히8:4]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셨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좇아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음이라.

그러니까 예수께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시려면 세상에서는 안 됩니다. 하늘에 가서서 하늘 성소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셨고 히브리서에 기록한대로 하늘에 있는 참 장막에서 대제사장으로 봉사하십니다. 예수께서 하늘에서 성소봉사를 하시는데 그 봉사의 실제적 적용에 대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계1:10~20을 읽어봅시다.

[계1:10~20]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1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 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12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13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 띠를 띠고 14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15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 소리와 같으며 16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취는 것 같더라 17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18 곧 산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 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19 그러므로 네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20 네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감사합니다. 요한이 계시 중에 대제사장의 복장으로 일곱 금 촛대 사이에 계시는 예수님을 봤습니다. 일곱 촛대는 성소에 있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하늘 성전의 성소에 계시는 것이

지요. 그런데 20절에 이 일곱 촛대가 바로 세상에 있는 일곱 교회라고 합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성소에서 봉사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무엇을 위하여 봉사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신다고 했군요.)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그렇지요. 결국 하늘성소봉사는 세상에 있는 각 시대의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소가 정결해진다는 말은 무엇이 정결해진다는 말이 됩니까? (당연히 세상에 있는 교회가 정결해진다는 뜻이네요.) 그렇습니다.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여지는 것은 이 세상에 교회가 정결하게 되는 일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6. 그러니까 2300주야 끝에 성소가 정결하여진다는 말은 그때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정결하여지는 사건이 있을 것이라는 뜻입니까?

답: 예, 일단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정결하여지기 위하여 교회가 어떻게 더러워졌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정결하게 해야 하도록 더러워진 것은 진리를 땅에 던져서 교회가 진리를 따라 바르게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땅에 던진 장본인인 작은 뿔이 심판의 피고로 계시된 것입니다.(단7:9~12) 이 작은 뿔의 핵심적인 죄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것입니다. 불의로 진리를 막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롬1:18) 계시록 14장 8절에는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고 했습니다. 바벨론이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을 했다는 뜻이지요. 진리를 땅에 던진 작은 뿔이 바로 진리를 땅에 던지는 일로 불의로 진리를 막는 일을 했으니까 계시록의 바벨론과 이 작은 뿔의 세력은 동일한 세력인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땅에 던진 진리가 회복되는 일이 있어야 합니다. 진리가 회복될 때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진리를 따라 올바르게 사명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진리와 오류가 섞여 있는 교리와 신조를 따라 신앙생활 하는 것은 바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7. 아, 예수께서 하늘 성소에서 봉사하는 것은 결국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봉사인데, 작은 뿔이 세상에서 속죄와 구원의 일을 자지가 할 수 있는 것처럼 활동하는 기간이 있었는데, 그 기간이 2300주야가 지났을 때 끝나게 될 것이라는 의미군요.

답: 말하자면 그렇습니다.

8. 그러면 어떤 진리가 땅에 떨어졌으며 그것이 어떻게 회복이 됩니까?

답: 지난 시간들 중에 언젠가 말한 대로 속죄의 도리가 외곡 되었잖아요. 오직 예수님만이 속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밝히는데, 특히 성소봉사와 관련하여 밝혔지요. 또 성소는 세상에 있는 성소만이 아니고 하늘에 예수께서 친히 봉사하는 성소가 있는데 그 실제적인 적용이 바로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을 밝혔지요. 무엇보다도 성소봉사에 대한 것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의 계명의 진상을 회복하게 되었지요. 그것을 올바르게 살피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문제가 무엇인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9.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문제라니요? 정확하게 말씀하시면 어떤 문제입니까?

답: 오늘날 교회가 전통적으로 주일이라고 지키는 날이 일주일 중에 첫째 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제 칠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지요. 안식일이 주일 중 첫째 날이 아니고 일곱째 날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었습니다.

10. 안식일을 첫째 날로 지키는 것과 일곱째 날로 지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까? 어느 날이든지 하루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예배하고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닐까요?

답: 사람의 생각으로 말하면 그래도 괜찮겠지요. 그러나 성경만이 오직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표준이라고 가르친다면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첫째 날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은 성경에 결코 없으니깐요. 더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돌 판에 새겨주신 십계명의 넷째 계명입니다. 이미 우리가 7장에서 공부한대로 작은 뿔의 세력이 때와 법을 변경코자 한다고 예언한대로 하나님의 계명의 때에 대한 것을 변경했는데, 성소정결 사건으로 회복되었습니다. 몰랐을 때에는 그것이 진리인줄 알고 소위 주일성수를 했겠으나 이제는 아닙니다. 땅에 던져진 진리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회복된 진리를 따라 제칠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수님의 성소정결봉사가 교회를 위한 봉사라는 것을 깨달으면 당연히 회복된 진리를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하지요.

11. 예수를 믿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날 짜 하나가 그렇게 성소정결이라는 꽤나 거창한 이벤트를 통하여 진리를 회복한다는 이름으로 다가와야 하는 것일까요?

답: 참 좋은 질문이네요. 이미 말한 대로 성소정결은 안식일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속죄에 대한 전반적인 오해를 바로잡고 또 세상에서 그렇게 불의로 진리를 막은 세력이 무엇인지 그 정체를 드러내었고, 동시에 유린된 하나님의 계명을 교회에 원상복귀 하도록 한 것이지요. 성경의 진리라고 할 때 그것은 전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진리를 아니지요. 예수를 믿는 도리가 오직 성경에서 모든 것이 나왔고 성경에서 모든 것을 찾아야 한다면 성경 밖에 사실을 신조와 교리로 사용한다면 그것은 이미 순수한 성경의 신앙은 아니지요. 성경과 성경 아닌 것이 섞인 것입니다. 혼합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직 세상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런 모든 알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았던 시기에 오래 참고 기다리시다가 역사적으로 성경을 바르게 연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었을 때에 성소가 정결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그때가 되었을 때 성소와 그 봉사의 진상과 땅에 던진 진리들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모두 세상에 두신 교회를 위한 봉사가 아닙니까. 우리는 신학과 교회 역사와 전통에 사로잡혀 성경말씀이 계시한 말씀 그대로의 진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정결하여진 진리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요.

12. 예, 그렇습니다. 지당한 말씀이군요. 애청자들께서도 잘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기로 하고 마쳐야 하겠습니다.

기도: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성소정결의 근본적인 실상을 알게 하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소정결 봉사로 모든 것을 복원하셨으니 누구든지 이 복원된 진리를 따 올바른 신앙생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생의 기를 힘차게 걸도록 복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